

이 영 북
대한건축사협회 감사
by Lee Young-Bok

부산자갈치 시장 현대화 현상설계 심사를 하면서

As a Jury of Design Competition for Jagalchi Market, Busan

부산 자갈치 시장 현대화 터키 현상설계 심사는 단적으로 간접 심사라 할 수 있다.

터키 현상설계 수행에 있어서 발주 방법은 일반적인 터키 방식에 의하고, 심사 방법은 당국이 심사숙고 끝에 제기한 (안)으로 이는 기술위원과 평가위원으로 구분해 시행하는데, 참가업체에 대한 건축적인 또한 기술적인 질의는 기술위원들이 시행하며, 참가업체에 대한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시행한다.

전술한 방법에 의한 터키 심사안은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으로, 당국에서도 이러한 방법이 합리적이라 인정된다면 점차 확대 시행하겠다 하였으나 기술위원들의 의견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이에 발주처인 부산도시개발의 입찰안내서를 검토한 결과 당초 발주처의 근본적인 타당성 조사가 미흡하였으며, 자갈치 시장 조합에서 요구하는 1, 2층 점포 할애 목적 이외에는 현상설계에서 항상 자료로 제시되고 있는 상징적 과업인 도시환경과의 조화, 국제관광명소, 첨단기능 겸비, 상업문화화와 현대화 등이었으며, 적용공법에서는 신기술 적용, 경제성, 안전성, 효율성, 배치계획 과업에는 어떠한 현상에서도 공통적인 대지 이용의 효율적인 계획, 창의성, 기능의 극대화, 차량동선, 보행자동선, 장애인 대비, 경관 고려, 환경친화적인 계획 등 그리고 기타 세부사항은 상식적으로 건물 계획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인 바 상기와 같은 내용이 입찰안내서 건축계획에 있어 주요 과업 내용이다. 주요 시설별 용도가 있긴 하지만 자갈치 현대화에 적합한 것인지 또는 소요 면적 산출근거가 시장조사 결과에 따른 것인지도 자못 궁금하다. 시설별 용도 및 규모는 사업성 분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건축계획에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점유하기 때문이다.

심사를 위한 사전 현상설계 참여자에게 질의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토록 하였는데, 이것은 다소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설계시 고려하지 않았던 사항을 임기응변 식으로 답하거나 아니면 기술위원들이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을 제출하는가 하면 이의 불합리함을 기술위원들이 공식적으로 지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굳이 기술위원이 심사장에서 별도 질의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이다.

또한 질의답변 시간만 해도 불과 15분으로 이중 질의자에게 부여되는 시간이 불과 5분, 현상설계자의 답변 시간도 각 5분으로, 이것은 질의 내용을 읽고 답변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짧은 시간이다. 더욱이 이번 경우에는 응모사가 2개 사란 것이 다행이었다. 16명의 심사위원들에게 부여된 질의응답 시간이 한 사람당 15분이니 수치상으로 총 240분(4시간)이지만 여기서 중식시간 등 기타 6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었는데 처음 질의한 건축계획 분야의 경우 6시간 여를 진행 과정만 지켜보아야 하는 지루함 역시 반드시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더욱이 현상설계 작품 내용이 각기 다르므로 질의할 내용도 각각 다르다. 그러나 공통적인 질의 내용을 제시하라는 것은 응모작품 개개의 장단점을 심도있게 평가할 수 없을뿐더러 결정적으로 지적 사항이 있어도(실질적으로 있었다) 그것이 모든 제출작에 공통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할 수가 없었다. 과거 현상설계시 외국에 건설되어 있는 건물을 모방하여 제출한 경우가 있었는데, 심사위원들이 이를 지적하며 심사의 정상화를 기한 일도 있지만 금번 심사 시에도 이러한 경우가 있었다 하더라도 지적을 할 수가 없었다.

작품 내용이 다른 현상공모업체에게 공통되는 질의란 있을 수가 없다. 현상설계 심사에 있어 건축계획 분야는 신중을 기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통적인 질의서를 작성하다보니 네 명의 기술위원 모두가 대동소이한 피상적인 질의 내용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고, 응모사의 답변도 추상적이고 또한 임기응변 식 답변에 불과했으며, 핵심적이고 명쾌한 답변이 제시되지 못 하였다는 것이 기술위원들의 자체 평가이다.

이러한 것은 현상설계 심사에서 있을 수 없는 것이며 가장 중요한 기술심사 위원들의 역할을 무색하게 만드는 처사이다. 더욱이 기술위원들의 질의 내용은 사전에 노출해서는 안 된다. 심사 당일 신중을 기하며 냉정하게 질의 답변을 하면서 솔직히 설계자와 작품의 장단점을 평가하여야 하며 당선 작품에 대한 시정 사항이 제시되어야 하거나 당선작에 대한 시정 사항은 발주처에서만 제

시될 뿐 기술위원들의 작품에 대한 평가 내용이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것은 보다 나은 작품화에 아쉬움이 될 것이다.

평가위원들의 평가는 단순히 기술위원들의 질의 답변하는 내용을 기준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적용한 평가 기준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궁금하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기술위원들의 전공한 분야와 근무처가 공개되었으며 평가위원들의 직장과 전문 분야에 대하여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다만 입구 게시판에 부착돼 있는 심사장 좌석 배치도에 기술위원 명단은 인쇄되어 있으나 평가위원은 보안상 그렇게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필기구로 쓰여져 있었다.

만일에 전문직이 아닌 평가위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현상공모사가 당일 평가위원에게 제시한 답변서 그리고 기술위원의 질의 내용이나 현상설계 응모사의 답변하는 과정에 있어 구사한 전문용어(View Corridor, Human Scale 등)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사료된다.

또한 설계심사의 경우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위원은 설계내용을 어느 누구보다 완벽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사전에 심의자료를 상당기간 검토하여야 하며 장단점을 충분히 파악한후 질의자와 답변자의 내용을 예리하게 관찰한 후 정확한 평가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 현상설계에서 당일 평가위원에게 현상공모업체에 기술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한 답변과 설계도서가 제시되었다면 심사 현장에서 작품성에 대한 검토 및 평가는 무리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공정한 현상설계를 수행하겠다는 발주처의 노력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한 처음 시도 하는 것이라 보완할 사항이 물론 있겠지만 그동안 지속되어온 현상설계의 문제점을 해소하는데는 미흡하다.

돌이켜 볼 것 같으면 현상설계에 있어 당락 결정은 특수 건물을 제외하고 거의가 건축계획에 의하는 바 건축계획 심사위원 선정에 있어서 재경 대학 건축과 계획교수 및 또한 몇몇 알려져 있는 대형 건축사무소의 대표에게 의뢰되

어 왔으므로 발주처의 심사위원 명단의 보안은 유지되기 어려웠던 것이었다. 심사위원 명단의 보안은 발주처의 방법과 의지에 따라 좌우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심사위원 선정에 있어 국한된 상태에서 선정하지 말 것이며 다양한 선정방법을 택함으로써 보다 나은 심사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입찰 조건, 수행 능력의 우위는 업체별로 차이가 없이 매우 근소하다. 이는 결국은 평가위원의 평가 결과에 의하여 결정되는 바 이번과 같이 평가위원을 노출시키지 않을 수 있다면 직접 기술심사 및 당일 질의를 하는 기술위원도 알려지지 않을 수 있는 바 평가위원이라는 심사제도는 배제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또한 당일 기술위원들의 역할도 다만 질의 및 답변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견이 심사 결과에 반영되어야 한다. 설사 평가위원들이 해당 분야에 대하여 전문직이라 하더라도 미처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서로가 의견을 교환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쳐 평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술위원들이 질의하고 현상공모업체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평가위원들은 평가를 동시에 시행하고 있었고 기술위원들의 질의가 끝나고 바로 평가위원들의 평가 결과가 취합되었다. 자갈치시장 현대화 터키에는 겨우 2개의 용역업체가 참가하여도 거의 하루가 소요되었다. 추후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라면 심의 시간의 단축을 고려해 분야별 별도의 심의를 시행할 것이며, 심의 과정에 있어서도 심의위원들은 사전에 질의 내용을 검토해 서로 중복되는 내용은 통합하거나 축소해 질의함이 바람직하다.

또 심사 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 과정에 있어 해당 분야 전문직 방청객을 초청 참관시킬 것이며, 최종적으로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기술위원 및 평가위원들의 자유스러운 의견교환을 필수로 건의하며 평가는 기술위원 및 평가위원 공동 무기명으로 업체선정을 하도록 제안한다. **■**